

(화문록)의 서술방식과 주제의식의 관계

김용기*

|| 차례 ||

- I. 서론
- II. 유사 장면의 반복적 서술과 기능
- III. 인물의 심리변화와 정신적 성장에 나타난 작가의식
- IV.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화문록>의 서술방식과 주제의식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을 새롭게 바라본 결과 대략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첫째, <화문록>에서 유사한 이야기가 세 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서술방식의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인물의 성격변화와 주제의식과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전대의 삼대륙계 장편소설이 독립된 단위담을 반복하는 것과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둘째, 세 명의 인물서사 중 두 명의 인물 서사는 전후 유기적인 관계망을 통해 전체적으로 화경의 인물 성격과 변화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동원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감성적 애정을 조명하고 제가와 치국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화경의 서사 → 양진의 서사 → 화경의 서사조명1 → 임금의 서사 → 화경의 서사조명2 → 임금의 서사 조명 → ① 감성적 애정 조명 ② 제가와 치국의 문제 조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셋째, 작가는 유사한 세 명의 인물 서사를 통해 제가와 치국이라는 집단적 가치와 애정의 긍정이라는 개인적 감성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각의 인물들

* 중앙대학교 강사

의 시행착오와 수정을 통해 정신적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성장소설적 성격도 함께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인물의 '사고'와 '경험'을 동시에 아우르는 통합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작품이라 할 수 평가할 수 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이성 중심의 유교적 이념이 감성 중심의 개인적 가치와 서로 대치되지 않도록 귀결시키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았다.

주제어 : <화문록>, 장편소설, 서술방식, 성장소설, 제가, 치국, 감성, 집단적 가치, 개인적 가치

I. 서론

<화문록>은 낙선재에 소장되어 있는 7권 7책의 한글 장편소설이다. 정병욱에 의해 처첩간의 쟁투를 그린 가정소설¹⁾로 소개된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아온 작품이다.²⁾ 애초에 이 작품은 처·첩 갈

1) 정병욱, 『이조말기 소설의 유형적 특징』, 『문화비평』 봄호, 1969.(김열규 외, 『고전문학을 찾아서』, 문학과 지성사, 1991에 재수록)

2) 이수봉, 『화문록연구』, 『개신어문연구』1집, 충북대학교 개신어문연구회, 1981.(이수봉, 『한국가문소설연구』, 경인문화사, 1992에 재수록)

두창구, 『화문록의 연구』, 『관동어문학』4집, 1985.

김도경, 『화문록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이창현, 『고전소설의 혼사장애구조와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박순임, 『고전소설에 나타난 처첩관계 갈등』,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0.

김탁환, 『사씨남정기계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강인범, 『화문록의 서술기법과 주제의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이순우, 『화문록 연구』, 『한국고전연구』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1996.

차충환, 『화문록의 성격과 장편 규방소설에 접근 양상』, 『인문학연구』제7호, 경희대 인문학연구소, 2003.

등을 그린 소설이라는 관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서술시각과 장편 가문소설적 성격 및 텍스트 형성과정 등에 대한 논의로 점차 논의의 관점을 달리 해 왔다.

선행 연구에서 어느 정도 밝힌 바와 같이, 이 작품의 주된 내용과 특징은 인물 간의 갈등과 독창적인 인물 성격의 창조에 있다. 선행 연구에서 인물 간의 갈등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처·첩 갈등,³⁾ 부부갈등’이 주된 내용이고, 인물의 독창적인 성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호홍매와 화경의 애정 중심 지향적 인물 성격이었다.

필자 또한 선행연구에서 밝힌 이러한 갈등 양상과 인물 성격에 주목하되, 이들과 조금 다른 시각에서 <화문록>의 특징과 소설사적 의의를 규명해 보려고 한다. 그것은 첫째, 이 작품에서 유사한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서술방식이다. <화문록>에 나타나는 유사 장면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는 각각의 장면이 서로 대응되거나 인물의 심리 변화에 기여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유사 장면은 공통적으로 齊家의 의미를 가지며,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治國의 의미로까지 확장되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삼대록계 장편소설에서 각각 독립되는 단위담이 반복되는 것과 형식적으로나 질적으로 그 의미를 달리한다.⁴⁾

정영신, 『화문록의 인물 갈등과 옹호에서 보여지는 환상성과 페미니즘적 성격』, 『동방학』제12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6.

이지영, 『화문록의 텍스트 형성 및 서술시각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3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3) 선행연구에서 妻·妾 갈등으로 논의된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 하면 妻·妻 갈등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해란과 호홍매는 처첩의 관계가 아니라, 첫째 아내와 두 번째 아내로 나타나며, 왕후와 만 귀비도 妻·妾의 관계로 불 성질은 아니기 때문이다.

4) 가령 <소현성록> 연작의 경우, 소현성이나 그 자식들인 소운경, 소운희, 소운성, 소수주, 소수빙 등의 부부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가문의 창달’과 ‘가문의 번성’이라는 주

두 번째는 이러한 세 가지 유사 장면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면서 심리변화와 정신적 성장을 하는 인물의 성격을 통해, 이 작품이 기존 작품과 다른 작가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화문록>이 齊家와 治國과 같은 集團的 價値 중심의 주제의식을 보여주면서도 화경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과 변화 과정을 통해 개인적 가치와 욕망을 동시에 긍정하는 작가의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요 인물들의 정신적 성장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성장소설적 성격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II. 유사 장면의 반복적 서술과 기능

어느 시대나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 형식이나 유행하는 내용들이 있다. 이 작품들은 독자들과의 소통이나 반응에서 성공한 문학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소설에 국한해서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특정 시대에 유행하는 문학은, 그 시대에 주도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작품들은,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 새로우면서도 근본적인 공감대를 잃지 않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화문록>의 재미와 의의는 이러한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로 귀결되지만, 이들 하나하나의 이야기나 인물 성격이 다른 인물의 성격변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는다. 이와 달리 <화문록>의 경우에는 세 이야기가 아주 긴밀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하나의 이야기는 다른 인물의 성격변화와 서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인물 하나의 행위가 다른 인물의 행위변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화문록>의 서술방식이라면, <소현성록>의 경우에는 인물의 단위담의 반복과 결합의 결과 ‘가문창달’과 ‘가문번성’이 나타난다는 차이점이 있다.

<화문록>에서 보여주는 妻·妻 갈등⁵⁾과 부부 갈등은 오랜 기간 가정 소설과 가문소설군의 작품들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던 내용들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엮어가는 방식이 새롭고, 그 기능 또한 독특하다. 내용은 유사하지만 그 내용을 풀어나가는 방식과 기능이 새롭다는 점에서 읽는 재미가 남다르다. 그것은 한 남자를 사이에 둔 두 여자들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인데, 이는 내용상 유사한 장면의 반복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그 각각은 작품 자체에서 유의미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화경과 ‘이혜란-호홍매’와의 관계

<화문록>의 전체 서사의 중심은 화경을 중심으로 한 이혜란과 호홍매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관계를 다시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화경-이혜란’, ‘이혜란-호홍매’, ‘화경-호홍매’의 갈등 양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1차적 원인은 화경과 호홍매의 感性을 중심으로 한 애정 욕망이다. 이들은 화경과 이혜란의 혼약 이후에 죽서루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의 외모에 반한다. 인격적인 흠모가 바탕 된 사랑이 아니라,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연애 감정에 기반한 감성적 애정이다.

<1>. 화경이 외숙부인 한 어사의 집을 찾아갔다가, 후원 죽서루에서 호홍매를 발견하다.

5) 가정·가문 소설의 경우 상황이나 관계설정 에 따라 ‘처-처’ 갈등이나 ‘처-첩’ 갈등으로 명칭이나 관계가 구분될 필요가 있다. <화문록>의 경우 ‘호홍매’가 첩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2처로 들어와 1처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볼 때, ‘처-처’ 갈등으로 보기로 한다. 특히 이 작품은 호홍매가 불안한 첩의 지위에서 정실의 자리를 탐하여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경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이혜란을 모해하고 또 갈등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처-첩’ 갈등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

- <2>. 화경이 그 험란한 자태에 눈이 황홀하고 정신이 나가 멍하니 서서 보다.
- <3>. 한줄기 바람이 불어 주렴을 흔들고, 때마침 홍매의 금비녀가 땅에 떨어지자 홍매가 비녀를 잡으려 하다가 화경과 눈이 마주치다.
- <4>. 두 사람이 한동안 바라보다가, 호홍매는 화경의 빼어난 외모에 낮이 빠지고 마음이 요동치며, 화경 또한 정신이 아득해 지고, 떨어진 비녀를 거두어 소매 속에 넣다.⁶⁾

위의 내용은 화경과 호홍매가 죽서루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에게 급속하게 호감을 가지는 장면이다. 이로 인해 화경은 이해란과의 혼사를 원하지 않게 되며, 호홍매와 결연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홍매 또한 화경의 ‘재실’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다른 남자에게는 시집가지 않겠다고 한다. 화경과 홍매와의 만남은 화경이 이해란을 멀리하게 되는 원인이 되며, 이해란 역시 화경을 방탕한 남자라 여기고 거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후 화경은 과거에 급제한 후 각노 호빈의 노력과 이 상서의 중재로 호홍매를 둘째 부인으로 맞이한다. 이로 인해 호홍매는 뜻을 이루었지만, 홍매의 화경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독점적 성향이 강하기에 그녀의 질투심은 이해란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호홍매는 자신에 대한 화경의 마음을 십분 이용하여 점진적으로 이해란을 모해하여 결국은 이해란을 첫째 부인 자리에서 내쫓고 자신이 첫째 부인 자리를 차지한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화경이 이해란의 처소인 죽서루에 대한 발걸음이 드물고, 호홍매 침소를 자주 드나들자 홍매는 기뻐하며 돈을 뿌려 집안 하인들의 환심

6) 임치균·송석우 역, 『화문록』,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1. pp.12-13. 본고의 텍스트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7권 7책을 번역한 이 자료로 하며, 이하에서는 작품명과 권수, 그리고 페이지만을 밝히기로 한다.

을 사다.

- <2>. 화운의 생일날 호홍매가 이해란의 시비 난화를 매수하여 화운이 마실 술에 독을 타고, 이로 인해 화운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며, 이해란이 모든 의심을 받다.
- <3>. 이 일로 이해란에 대한 화경의 마음은 더욱 멀어지고 그녀를 증오하게 되다.
- <4>. 호홍매는 약난을 통해 변용단을 구하여 이해란이 외간 남자와 사통하는 것으로 꾸미고, 이를 목격한 화경은 이해란을 더욱 증오하다.
- <5>. 호홍매가 약난과 모의하여 이해란이 설경운과 사통한 것으로 꾸며 화경이 믿도록 하다.
- <6>. 단약에 중독되어 정신이 많이 흐려진 화운과 화경은 결국 이해란을 폐출하고 호홍매를 첫째 부인 자리에 앉히다.⁷⁾

위의 내용은 화경이 편벽된 사랑으로 인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 이를 이용한 호홍매의 행위와 간계로 인해 이해란이 축출되고 홍매가 첫째 부인을 차지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호홍매는 화경의 사랑을 독차지 하고 또 첫째 부인의 자리까지 차지하였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 그녀는 난소에게 요약을 주어 계략을 시행하게 한다. 난소는 이해란의 유모와 그 딸 난앵의 모습으로 변하여 그들을 독약으로 해친다. 그리고 자신의 오라비 난춘과 함께 이해란에게 독약을 먹인 후 그녀의 아들 친보와 함께 강물에 버리려 하다가 하남절도사로 부임하는 유세광에 의해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러한 서사에서 중요하게 그려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色의 욕망에 현혹되어 家長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미숙한 화

7) 『화문록』, pp.50-78.

경의 모습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애정 욕망 실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惡女 호홍매의 모습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러한 유사한 장면이 이것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수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양진과 그 처첩에 대한 이야기도 화경 내외의 이야기와 흡사하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 장면의 반복적 제시를 통해 드러내려는 서사적 의미도 서로 긴밀하게 통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 절에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양진과 ‘한씨-계앵’의 관계

<화문록>에서 화경의 이야기와 유사한 내용으로 제시되는 되는 것은 선비 ‘양진의 이야기’이다.⁸⁾ 남쪽의 장사, 영능 근처에 전염병이 크게 돌고 흉년까지 들어 백성들이 많이 상하니, 임금은 화경에게 명하여 소와 양과 곡물을 보내어 주린 백성들을 구휼하고 마을을 돌며 위로하라고 한다. 이에 화경이 백성을 돌보니 위엄과 덕이 함께 하고, 반 년 만에 교화가 크게 이루어져 도적이 양민이 되고 그 칭송하는 소리가 자자하게 된다. 그 공으로 화경은 병부상서 대사마에 제수된다. 이후 화경은 하남 땅 경계에서 어떤 소년이 묘 앞에서 통곡하는 것을 목격하고 다가가 그 사연을 묻는다. 이에 양진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양진은 명문가 집안의 딸 한씨와 혼인하였는데, 한씨는 용모와 덕성이 옛사람에 못지않았으며, 혼인하여 5년에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다.
- <2>. 양진이 사리에 어둡고 모자라 요상한 계집 계앵에게 빠지다.

8) <화문록>에 나타나는 세 가지 이야기 중, 양진의 이야기는 다른 두 가지 이야기와 달리 양진의 요약적 진술로 이루어져 있다. 화경이나 임금과 비교했을 때, 서술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야기의 골자와 근간은 같은 위계에서 파악될 수 있다. 작가의 의도된 서술 방식이라 할 수 있다.

- <3>. 양진이 창녀 계앵에게 우연히 한 번 정을 준 뒤로 안개 속에 빠지듯 아득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첩으로 삼다.
- <4>. 계앵이 얼굴을 바꾸는 개용단, 외면단이라는 약을 먹고는 한씨의 얼굴이 되어서 양진을 미혹하여 한씨를 이런저런 계략으로 모함하다.
- <5>. 양진은 그것에 미혹되어 한씨를 음란한 계집으로 오해하며 화를 내고 그 모자를 내치다.
- <6>. 얼마 후 태화산 도사가 개용단·외면단을 지어 본처나 애첩을 없애려고 하는 여자들에게 천금에 파는 바람에 봉변을 당한 집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다.
- <7>. 양진이 계앵도 이 약으로 한씨를 잡은 것으로 짐작한 후, 계앵을 심문하여 모든 사실을 알고, 급히 아내를 찾았으나 아내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고 목숨을 끊다.
- <8>. 양진이 요망한 계앵을 죽여 원수를 갚을까도 하였으나,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둔 터라 자식들 볼 낫을 보아 망설인다고 하고, 화경에게 처결 방안을 자문하다.
- <9>. 화경이 세상에 어찌 그런 약이 있냐고 하니, 양진은 약이 아직 그대로 있으니 시험하자고 하고, 화경은 시동에게 약을 주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 보라 하니, 시동이 약을 먹고 화경의 모습으로 변하다.
- <10>. 화경이 이에 놀라고, 양진에게 흉악한 계집을 죽여 죄를 다스리라고 하고, 한씨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고, 그 아들을 돌보아 영혼이나마 위로하라고 하다.⁹⁾

위의 이야기는 양진이 경험한 내용을 화경에게 들려주는 장면이다. 양진은 창녀 계앵에게 미혹되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어진 아내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다. 양진의 아내는 지극히 원통함을 품고 비명에 죽었는데, 이로 인해 양진은 죽어도 씻지 못할 한이 가슴에 맺혀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요약한 첩 계앵의 행위가 태약산 도사의 장난과 어

9) 『화문록』, pp.108-110.

우려져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 이야기는 하남 땅 요악한 귀신이 장난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이전 이야기에 하남 절도사가 하남 땅에 요악한 귀신이 장난하므로, 어진 신하를 보내어 요상한 귀신을 제압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 이에 임금은 이해란의 오라비인 이부시랑 이관을 하남 순무어사로 보내어 요상한 귀신을 제압하라고 하고, 이관은 하남 여러 곳을 잘 다스리고 요상한 귀신을 제압한다. 그러면서 요상한 귀신 이야기는 <본전> 속에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는다고 한다.

<화문록>과 관련된 <본전>이 따로 있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태화산 도사 이야기와 요악한 귀신의 장난은 정황으로 보나 의미상으로나 통하는 바가 있다. <소현성록>에도 단약으로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사악한 도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이와 같은 맥락으로 그 정황을 대략 추리할 수 있다고 본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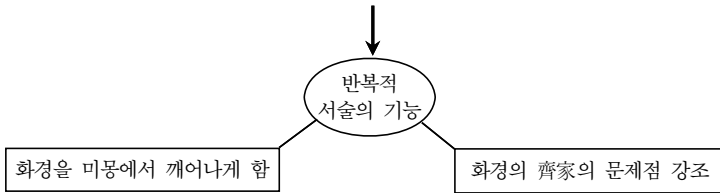
따라서 하남 땅 요악한 귀신의 장난은 태화산 도사의 단약 사건과 관련이 있고, 이는 다시 계영이 단약을 사용하여 어진 한씨를 모함하는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단약은 어리석고 미숙한 가장 양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사건과 어우러짐으로써 서사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양진 이야기는 일부 상이한 화소가 개입되어 있고, 서술방식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화경의 서사와 매우 대동소이하

10) 또 <화문록> 본문 속에 잠시 언급되는 <본전>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 존재한다기보다는 서술기법상 제시한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화문록> 마지막에 등장하는 <화씨팔룡기> 역시 실제 존재한다기보다는 이후 연작을 고려한 사전 포석의 작업으로 제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본전> 역시 <화씨팔룡기>를 염두에 둔 복선이나 설명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짐작해 본다.

고, 거기서 추출되는 의미 또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면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NO	인물	성장시기	성격	행위1	행위2	매개요소	결과1	결과2
[A]	화경	어린소년	호탕/ 사리에 어두움	齊家에 미숙함	악녀 호홍매에 게 미혹됨	단약, 변용단/음탕한 여인으로 누명	어진 첫째 부인 축출	모자 죽을 고비
[B]	양진	어린소년	호탕/ 사리에 어두움	齊家에 미숙함	악녀 계영에게 미혹됨	개용단, 외면단/음탕한 여인으로 누명	어진 첫째 부인 축출	첫째부인 자살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화경 서사와 양진 서사는 유사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화경의 서사를, 사람을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화경의 齊家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양진의 이야기는 화경이 단약의 혼몽함에서 깨어나 호홍매와 이혜란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기능적 역할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화경과 양진의 서사에서 반복되는 장면은, 임금의 경우로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유사한 서사의 반복은 <소현성록>과 같은 삼대록계 장편소설에서 독립되는 유사한 단위담이 반복되는 것과 그 의미가 질적으로 다르다. <소현성록>과 같은 삼대록계 장편소설에서 유사한 단위담이 반복되는 것은 독립적 성향이 강하면서 동시에 ‘가문’의 창달이나 번성과 관련된다.

이에 비해, <화문록>의 경우에는 각각의 단위담이 독립되면서 동시에

그 의미가 상호 긴밀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 그러한 서사의 긴밀성이 주인공 화경의 성격변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다른 장편소설과 변별되는 바가 있다. 이들의 이야기와 통하는 바가 있는 임금의 이야기를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임금과 ‘왕후-만 귀비’의 관계

<화문록>에서는 사대부가의 부부 이야기가 왕실에도 그대로 적용되게 함으로써 齊家와 治國을 동시에 문제 삼고 있다. 이는 상황을 좀 더 확장하여 주제의식을 심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임금과 왕후, 그리고 후궁 만 귀비의 관계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반부의 화경과 호홍매, 이해란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되는 서사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임금의 이야기는 곧 화경의 이야기로 치환해 볼 수 있도록 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심상치 않다.

이 갈등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사건과 관련되어 진행된다.

[가]. 출거된 호홍매가 재기를 위해 이해란 참소와 모략

[나]. 화경과 이해란의 재결합과 이를 깨기 위한 임금의 사혼

[가]와 [나]는 사실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인데, 논의의 편의를 위해 둘로 구분하였다. [가]의 모략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의 임금의 賜婚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둘을 구분하여 논의해 보면, 이 중에서 [가]는 하남 지역에서 양진을 통해 개용단과 외면단에 대해 묵도한 후, 화경은 호홍매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녀를 점점 멀리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서사이다. 그러던 중 화경은 이해란이 살려달라는 꿈

을 끈 후 이화당에서 흥매와 난소의 대화 내용을 엿듣고 일의 전모를 알게 된다. 이에 화경은 화씨 집안에 숨어 있던 난화를 잡아와 그동안의 사악한 일들이 모두 호흥매가 꾸민 것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화경은 부친에게 고하여 호흥매를 친정으로 출거시킨다.¹¹⁾ 하지만 친정으로 쫓겨난 흥매는 어머니 만 부인을 통해 후궁인 만 귀비에게 이혜란을 음란한 여자로 참소하고, 그녀를 해칠 모략을 꾸민다.¹²⁾

[나]는 이씨 형제들과 남학사의 장난 후 이혜란과 재결합한 화경 부부에 대해서 가해지는 사건들이다. 친정으로 쫓겨난 호흥매는 이혜란이 죽은 줄 알고 화씨 집안으로 돌아갈 궁리를 한다. 그러다가 그녀가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어머니 만 부인과 함께 이혜란의 행복을 꾀 궁리를 하게 된다. 그 방법은 만 귀비의 딸 태아공주의 부마로 화경을 선택하게 하는 賜婚과, 이혜란을 첩으로 강등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이혜란의 액운이 다하지 않은 것과 관련되며, 이 두 이야기는 다음의 [대]서사로 통합되어 복합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대]. 임금의昏暗과 편벽된 애정으로 인한 治國의 불안¹³⁾

- 만 귀비가 신선이 자신에게 와서 하늘이 태아공주와 화경을 연분으로 정하였다고 거짓 이야기를 하며 화경을 부마로 삼아 달라 하다.
- 임금은 만 귀비를 총애하여 만 귀비의 뜻에 따라 조서를 내려 화경을 부마로 삼고, 이혜란에게는 첩의 등급을 주다.
- 화경이 공주와 혼인하라는 임금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하고, 만언소를 올려 임금이 만 귀비만 총애하는 것을 간하고, 만안 등의 참람함을 고하나, 임금은 그를 불러 꾸짖다.

11) 『화문록』, pp.113-127.

12) 『화문록』, pp.197-199.

13) 『화문록』, pp.201-254. 아래 내용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개조식으로 정리해 본 것이다.

- 화경이 다시 후궁의 부마가 되어 간사한 무리와 같은 당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화경을 옥에 가두라고 하다.
- 임금은 귀비를 총애하여 **중전을 폐할**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화경이 만 귀비를 욕하는 것을 듣고 크게 노하다.
- 만 귀비가 임금에게 다시 **참소**하여 이해란과 그 부친 이광운을 **참수**하라 하고, 임금은 교지를 내려 이해란을 잡아 올리라 하다.
- 만 귀비가 임금에게 이해란을 멀리 유배보내라 하니, 임금은 그녀를 축도 해남에 유배 보내라 하고, 화경도 멀리 유배 보내라는 만 귀비의 말에 **축 땅으로 유배 보내다.**
- 이해란의 오라비 이관이 사직 상소를 올리자, **중전을 폐할 뜻이 있던 임금이** 즉시 운허하다.
- 이 상서가 전공을 세운 후 돌아와 세 번 사직상소를 올리니. 임금이 이광운의 관직을 삭탈하고 남부 포정사로 임명하다.
- 임금이 만 귀비에 대한 은총이 날로 더해져 **태자를 내쳐** 조대 땅을 두루 살피라 명하고, **중전을 내궁에 가두니,** 임금의 잘못을 간하다가 죄을 입은 신하가 많고, 다투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이름난 정승과 판서들이 부지기수이다.
- **중전이** 임금의 박대와 만 귀비의 모해를 입어 주야 슬퍼하다가 병이 들어 세상을 버리다.
- 나라의 운세가 불행하여 임금의 건강이 좋지 않아져 백약이 효과가 없어지니, 임금이 태자를 나오라 하여 지난날을 뉘우치고, 간신을 멀리하고 충신을 등용하라 하다.

위에 제시한 [다]의 내용은 이해란과 화경에 대한 호홍매의 질투가, 그들에 대한 참소와 괴롭힘으로 나타나다가 그것이 임금의 편벽된 사랑과 治國의 불안과 통합되어 있는 서사이다. 한 가정의 파탄과 齊家의 문제가 임금에게로 확대되면서 동시에 국가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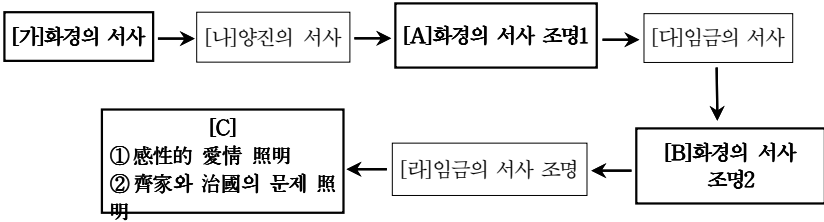
이 중에서 임금과 ‘왕후-만 귀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만을 추려

보면, 위의 밑줄 친 것들이 이에 해당된다. 임금은 앞서 제시되었던 화경이나 하남 선비 양진과 같이 편벽된 사랑으로 인해 한 가정의 분란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결국에는 왕후가 마음의 병을 얻어 죽게 만드는 인물이다. 이는 민간의 기준으로 국한해서 보면 齊家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사회 및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治國의 문제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이 부분 역시 화경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장면에 해당되며, 그 의미 또한 齊家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앞서 논의된 것에 더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NO	인물	성장시기	성격	행위1	행위2	매개요소	결과1	결과2
[A]	화경	어린소년	호탕/사리에 어두움	齊家에 미숙함	악녀 호홍매에게 미혹됨	단약, 변용단/부인을 음탕한 여인으로 누명	어진 첫째 부인 축출	모자 죽을 고비
[B]	양진	어린소년	호탕/사리에 어두움	齊家에 미숙함	악녀 계앵에게 미혹됨	개용단, 외면단/부인을 음탕한 여인으로 누명	어진 첫째 부인 축출	첫째 부인 자살
[C]	임금		사리에 어두움	齊家(治國)에 미숙함	악녀 만귀비에게 미혹됨	간인들의 참소	왕후 폐위/태자 원찬	왕후 죽음

따라서 화경, 양진, 임금의 서사는 유사 장면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서술 방식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화경의 齊家와 감성적 애정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서술방식이라 생각된다. 이는 하나하나가 독립되는 서사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은 결국 서로 앞뒤의 서사를 조명하게 하여 주제의식을 분명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서술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술방식과 의미를 통해 <화문록>에서는 감성적 애정과 가장의 제가(화경-임금)와 치국(임금)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화문록>의 화경, 양진, 임금의 서사는 각기 독립적이면서도 각각의 서사를 독해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는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때 궁극적인 주제는 '[C]②'가 된다. 하지만 이것이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C]①'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화문록>에서 이 또한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화문록>의 서술방식을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생긴다. 그것은 바로 감성적 애정의 수용에 대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C]②'가 결국에는 '[C]①'의 감성적 애정¹⁴⁾의 폐단 때문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의 작가는 작품 전면에서 일방적으로 호홍매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사씨남정기>의 교씨와 같이 악인이면서 동시에 정조의 가버움을 드러내는 여성이 아니라, 자신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남성에 대한

14) <화문록>에서 감성적 애정의 문제는 화경, 양진, 임금이 모두 해당하는 문제이다. 이 중 서사의 전면에서 감성적 애정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화경의 애정이다. 따라서 양진의 애정문제는 화경을 깨우치는 데 활용되고 있다면, 임금의 애정 문제는 화경의 감성적 문제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화경의 감성적 애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양진과 임금의 경우에는 이를 보조하는 차원에서만 다루었다. 그래서 위의 표에서도 화경의 서사를 진하게 표시하여 이를 구분하였다.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서 동시에 정조를 중시하는 여성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자신의 애정 실현이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악행을 저지르기는 하지만, 화경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의리나 정조를 지키려 고수하는 개성적인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화문록>의 감성적 애정은 齊家나 治國이라는 주제의식 구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감성적 애정의 또 다른 평가라는 작가의식이 함께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Ⅲ. 인물의 정신적 성장과 심리 변화에 나타난 작가의식

문학 작품 속에는 작가의 생각이 녹아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양산된 작품들 중에는 형식과 주제가 비슷하면서도 주체에 대한 작가의 변화된 생각을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이 간혹 보인다. 이러한 작가의 변화된 생각은 시대적인 흐름의 반영일 수도 있고, 작가의 생각 변화를 통해 독자의 수용과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화문록>에 나타나는 이러한 작가의식은 바로 애정에 대한 긍·부정적 시각과 이를 실현해 나가는 미숙한 남성들의 행동수정과 정신적 성장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정신적 성장은 <화문록>의 것만은 아니고, 삼대록계 장편소설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삼대록계 장편소설에서는 수많은 남성 인물들이 그러한 정신적 성장을 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¹⁵⁾ 그리고 그러한 정신적 성장과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가문의 안녕과

15) 삼대록계 장편소설의 성장소설적 성격을 잘 드러낸 논문으로는 다음의 글이 좋은 참고가 된다. 박은정은 <소현성록>과 <소씨삼대록>에 나타난 남성 인물들의 성장소

변영을 위한 齊家와 사대부로서의 가장 큰 이상이라 할 수 있는 治國의 안정이다.

작가는 주인공 화경이 정신적 성장을 거쳐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기까지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게 하고 있다. 첫 번째는 호홍매와 이혜란을 통해 드러나는 개인적 감정 중심의 애정 욕망이다. 이 과정에서 화경은 미성숙한 정신연령과 단약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져 어진 부인 이혜란을 곤경에 빠뜨린다. 작가는 이러한 화경에 대해,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점진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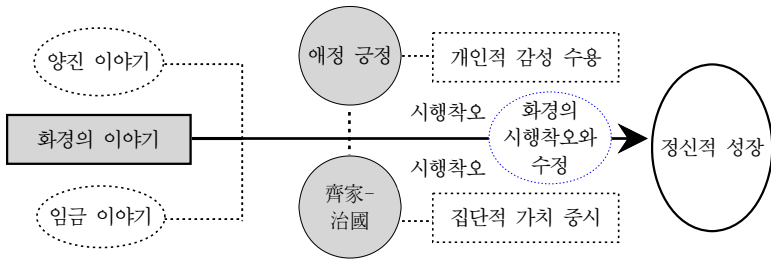
그것은 이씨 형제들과 남학사의 조롱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들은 술에 미혼단을 타서 화경에게 먹인 후, 죽은 줄로 알고 있는 이혜란을 그와 만나게 해 준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에서 연출되는 화경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주변사람들이 보고 조롱하게 된다. 또 화경이 이혜란을 설경윤과 사통했다고 의심하여 그녀를 폐출하는데 앞장 선 것에 대해서는, 이씨 형제들과 남학사가 추녀인 녹섬을 동침시켜서 보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화경은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애욕 중심의 감성적 욕망이 그릇됨을 서서히 깨우치게 된다.

화경의 이러한 깨달음은 개인적 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서사 전면에서 사필귀정과 권선징악의 사회적 주제의식과 병행하여 나타나고 있다. 다만 애욕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혐오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시행착오를 수정해 나가는 방식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 이는 齊家の 완성이면서 治國의 실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제가와 치국에 함의된 속성은 한 인물의 정신적 성장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애정이나 齊家, 治國에 부족한 인물은 나타나지만, 이는 모두 포용해야 할 대상

설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박은정, 「소운성을 통해서 본 <소현성록>의 성장소설적 성격」, 『어문학』108집, 한국어문학회, 2010, pp.53-86).

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화문록>에서는 화경의 개인적 감성 중심의 애육과 집단적 가치 중심의 齊家와 治國 어느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서사의 전면에서 안고 가고 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쳐 이 둘을 하나로 실현할 수 있는 정신적 성장을 이루는 인물이 새로운 시대에 요청되는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를 표로 시각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화문록>은 당대의 집단적 가치라 할 수 있는 제가와 치국을 서사의 전면에서 내세워 주제의식으로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인간 개개인의 감성인 애정을 비교적 긍정적 시선에서 조망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개인적 가치와 집단적 가치를 동시에 아우르고자 하는 작가의식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의 가치로서 집단적 가치인 제가와 치국이 우선시되면서 제2의 가치인 개인적 감성적 차원의 애정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七情의 전면적 수용에는 이르지 못하고, 변화 가능성 내지 수용 가능성이 녹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칠정이 작품에서 전면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화경, 양진, 임금의 애정 중심의 감성이 한 인물의 시행착오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다만 그러한 시행착오가 주인공을 비롯한 양

진과 임금의 정신적 성장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성장소설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이러한 작가의식은 사고와 경험의 중요성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대상에 대한 다른 인식, 즉 자기 방식대로의 이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라고 하는 경험이 더 큰 정신적 성장의 바탕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인물의 ‘사고’와 ‘경험’을 동시에 아우르는 통합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이성 중심의 유교적 이념이 감정 중심의 개인적 가치와 서로 대치되지 않도록 귀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IV. 결론

이상에서 <화문록>에 나타난 서술방식과 주제의식의 관계를 논의해 보았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첫째, <화문록>에는 유사한 장면이 세 번 반복적으로 서술되는 데, 이는 인물의 성격변화와 주제의식과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전대의 삼대록계 장편소설이 독립된 단위답을 반복하는 것과 형식이나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둘째, 세 명의 인물과 관련되는 서사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도 하나의 서사는 그 다음 서사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전체적으로 입체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드러난다. 가령 ‘화경의 서사→양진의 서사→화경의 서사조명1→임금의 서사→화경의 서사조명2→임금의 서사 조명→① 감성적 애정 조명 ② 제가와 치국의 문제 조명’의 과정과 의미망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작가는 양진의 이야기와 임금의 이야기를 전후에 병치시켜서, 화경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그 과정에서 제가와 치국이라는 집단적 가치의 중시와 애정의 긍정이라는 개인적 감성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각의 인물들의 시행착오와 수정을 통해 정신적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성장소설적 성격도 함께 드러내고 있다.

넷째,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인물의 ‘사고’와 ‘경험’을 동시에 아우르는 통합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이성 중심의 유교적 이념이 감성 중심의 개인적 가치와 서로 대치되지 않도록 귀결시키고 있다.

【참고문헌】

- 강인범, 『화문록의 서술기법과 주제의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도경, 『화문록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김열규 외, 『고전문학을 찾아서』, 문학과 지성사, 1991.
- 김탁환, 『사씨남정기계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두창구, 『화문록의 연구』, 『관동어문학』4집, 1985.
- 박순임, 『고전소설에 나타난 처첩관계 갈등』,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0.
- 박은정, 『소운성을 통해서 본 <소현성록>의 성장소설적 성격』, 『어문학』108집, 한국어문학회, 2010.
- 이수봉, 『화문록연구』, 『개신어문연구』1집, 충북대학교 개신어문연구회, 1981.
- _____, 『한국가문소설연구』, 경인문화사, 1992.
- 이순우, 『화문록 연구』, 『한국고전연구』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1996.
- 이지영, 『화문록의 텍스트 형성 및 서술시각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3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 이창현, 『고전소설의 혼사장애구조와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임치균·송석옥 역, 『화문록』,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1.
- 정병욱, 『이조말기 소설의 유형적 특징』, 『문화비평』 봄호, 1969.
- 정영신, 『화문록의 인물 갈등과 옹호에서 보여지는 환상성과 페미니즘적 성격』, 『동방학』제12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6.
- 차충환, 『화문록의 성격과 장편 규방소설에 접근 양상』, 『인문학연구』제7호, 경희대 인문학연구소, 2003.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thod of Description
and the Themes of <Hwamoonrok>

Kim, Yong-Ki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thod of description and the themes of <Hwamoonrok>. About three characteristics were verified as a result of reconsidering this work on the basis of the precedent researches.

First, similar stories were described repeatedly in <Hwamoonrok>. This kind of method of description acts organically on the change of personality and the themes. It is different in quality unlike a full-length novel, <Samdaerokgye> that repeat the independent unit story.

Secondly, two of three personality descriptions were mobilized in order to show Hwakyeong's personality and its change stereoscopically through the entire organic network of relation. Emotional affection was magnified and the problems of managing a household and ruling a nation were revealed in the process of it. Th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Hwakyeong's description -Yangjin's description-The first shedding light on Hwakyeong's description -King's description-The second shedding light on Hwakyeong's description -Shedding light on king's description-Shedding light on emotional affection -Shedding light on the problems about managing a household and ruling a nation.

Thirdly, the writer accepts both the group value of managing a household and ruling a nation and the personal sensibility of assuring affection at the same time. It has a characteristic of growth novel eliciting mental growth from the characters' mistakes and corrections in the progress of it.

In this regard, this work can be rated as one of works that emphasize on integrated thought dealing with character's 'thinking' and 'experiencing'

simultaneously. Therefore, this work has a conclusion that Confucian ideology centered on one's reason is not in collision with the personal value centered on sensibility.

Key Word : <Hwamoonrok>, a full-length novel, method of description, growth novel, managing a household, ruling a nation, sensibility, group value, personal value

김용기

소속 : 중앙대학교 강사

주소 : (405-757)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22-16(만수6동) 금호아파트 105동 1801호

전화번호 : 010-6207-7741

전자우편 : tantandero@naver.com

<p>이 논문은 2014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4년 3월 2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4월 8일 게재 확정됨.</p>
